

복구, 재정 신속집행 9년 연속 전국 최우수

상황실 운영 예산집행 특별관리 특별교부세 4억원도 추가 확보

광주시 복구가 9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속집행 상황실'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 목표 등을 특별 관리한 것이 주요했다. 복구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억원의 특별교부금 까지 받게됐다"고 4일 밝혔다.

복구는 지난해 예산액 8043억 원 중 7437억 원을 집행해 재정집행 목표인 84.5%를 웃도는 92.46%의 집행률을 달성하면서 9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업·주민참여예산 사업·생활SOC 사업 등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고 복구는 설명했다.

특히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신속집행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인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사업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특별 관리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는데 집중한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복구는 올 상반기에도 지역경제에 활력

을 불어 넣고 자치구 재정집행 목표 57%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인 복구정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청의 모든 부서가 적극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 지방재정의 선순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1월의 공무원' 신영환 주무관

민주인권 파크 조성 등 기여

광주시가 '1월의 공무원'으로 민주인권 평화국 5·18선양과 신영환(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신 주무관은 10여년 간 지연되던 옛 광주교도소 부지내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데 기여하고,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유치로 확정 짓는 등 민선 7기 공약 2건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법무부 소유 광주교도소 부지를 국가에서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국유지를 유상양여 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가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 주무관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 시작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를 설득한 끝에 사적지 보존 공간 확보는 물론 원형복원이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비



115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신 주무관은 또 5·18, 부마항쟁, 여순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전에도 뛰어들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로 확대·운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시비로만 운영되던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20년부터 국비 6억2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등 4년 동안 국비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 주무관은 "기본 업무에 충실한 것 뿐인데, 시청 동료들을 대표해 상까지 받게 되니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여성 구직자 대상 취업입문스쿨 운영

11월까지 18기 200명 상담·모의면접 등 지원

광주시가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입문 스쿨을 운영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구직자의 근로의욕과 구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입문스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인 '취업입문스쿨'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 예정인 여성의 경력 설계 및 취업준비를 지원한다.

올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8기(차례)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상담사와 함께 20명 내외의 소그룹 집단상담 형식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등 2개로 나눠 운영된다.

각 기수 참여자는 ▲직업선택도 검사 ▲1대 1 맞춤형 직업 진로상담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직장인 의사 소통법 배우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개인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여성인턴십과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사진 무료촬영, 수료증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취업입문스쿨 참여 희망자는 방문 또는 전화(062-613-7964, 7998)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더 많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동행 파트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올 봄 광주 5개 구청과 유관기관 등에 공급할 석죽과 팬지, 비올라 등에 물을 주고 있다.

市농업기술센터, 가로화단 조성용 봄꽃 60만본 공급

석죽·팬지·비올라 등 12종 3월2일부터 유관기관 공급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센터 꽃육묘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봄꽃 60만본을 다음달 2일부터 5월8일까지 광주 5개 구청과 유관기관, 각종 행사장 등에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광주시에 적합한 꽃 종류와 수량을 파악해 생산에 들어갔다.

공급하는 꽃은 대표적인 봄꽃으로 꼽히는 석죽(패랭이), 팬지, 비올라를 비롯해 개화기간이 길고 아름다운 금잔화, 라넌클러스, 크리산세뮬 등 고급 초화류 12종이다. 공급

은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분은 3월2일부터 13일까지 40만본, 2차분은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20만본을 공급한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봄꽃을 시작으로 올해 총 130만본의 꽃모종을 생산·공급해 세계적 아름다운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슬레이트 지붕 개량 동당 427만원 지원 434동 14억4400만원 투입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올해 사업비 14억44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올 사업비는 전년대비 82%나 증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에서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동당

주택 철거는 최대 344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427만원으로 늘렸다. 비주택 철거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철거 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개인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이월된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올해 주택철

거 331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철거 53동 등 총 434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市보건환경연 생활·대기·수질 정책 간담회

5·7일, 시·자치구와 정보 공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5일과 7일 생활환경·대기·수질 등 환경 관련 3개 분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와 자치구 등 지도점검 기관과 시험분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간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환경분야 지도점검을 비롯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첫 날인 5일에는 생활환경분야

를 주제로 최근 3년간 생활환경분야 측정자료 등을 공유하고, 7일에는 대기 및 수질분야 간담회를 연다.

대기분야 간담회에선 대기배출시설오염도 검사 추진방법 논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검사외의 조정 등 업무 협의의 등을, 수질분야 간담회에선 민방위 비상급수 검사 결과 공유, 시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료채취요령 안내, 검사 의뢰 주기 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환경 분야 간담회에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구 위험 신호 'LED 교차로 알림이' 설치

광주시 남구가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월산동과 주월동 지역 교차로에 차량 진입 시 LED 불빛을 통해 위험 신호를 알리는 '교차로 알림이' 설치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많은 월산동 덕림중앙길과 주월동 군분로 인근 교차로 2곳에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월산동 지역민의 사업 제안을 수용해 이달 중 옛 월산시장 인근 사거리에 형성된 덕림중앙길 교차로에 알림이를 설치하고, 주월동 군분로 일대 교차로 1곳에도 교차로 알림이를 도입한다.

교차로 알림이는 학교 주변이나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형성된 교차로 정중앙에 차량 감지센서를 내장한 LED 표시등을 매립, 차량 전조등을 감지하면 색상 변화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차로 알림이(2010-2017년) 효과분석에 따르면 대구 서구와 경남 창원, 통영 등지에서는 설치 초기부터 교통사고가 감소했으며, 야간 사고의 경우 사고율도 8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모두가 각종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